

##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으로 세계 사진출력시장 ‘평정’에 나서다

### 즉석 사진인화기 전문업체 (주)준시스템

폰 카메라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2003년부터 ‘포토허브’를 선보이며 즉석 사진인화기 전문업체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은 (주)준시스템(대표·조재명/www.dphub.com)은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국 PMA에서 미국 프로사진가협회 주최로 열린 ‘DIMA Photo Kiosk Shoot-Out 대회’에서 전문가 패널 평가 결과 아시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세계 정상 제품들과의 기술경쟁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준시스템은 올해를 ‘수출 원년의 해’로 삼고 세계 사진출력시장 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취재 | 박지연 기자

1989년 창립하여 사진기자재를 공급해 온 준시스템이 글로벌 포토 키오스크(즉석 사진인화기) 전문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디지털 카메라에 이어 2003년 새롭게 화두로 떠오른 폰 카메라 출력물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던 조재명 사장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디지털카메라사업에서 눈을 돌려 즉석 사진인화기 사업에 뛰어들어 국내 최초로 ‘포토허브’를 선보이고 지난 5년간 고집스럽게 최고 품질을 향한 포토 키오스크 개발에만 매달려 왔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준시스템의 이름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2004년 웨미리마트 등 편의점에 ‘포토허브’를 설치한데 이어 전국 LG텔레콤의 PHONE&FUN, SK텔레콤의 TTL존, KT의 다락 매장 등 휴대폰 복합매장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후지필름에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PMA 전시기간동안 미국 프로사진가협회 주최로 열린 ‘DIMA Photo Kiosk Shoot-Out 대회’에서 준시스템의 제품이 전문가 패널에 의한 평가에서 당당히 아시아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비록 우승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PMA의 'DIMA Photo Kiosk Shoot-Out 대회' 아시아 최고 상 영예**

준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주력 장비는 사진전문현상소에서 고객이 직접 사진을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무인 사진 주문기인 '오더스테이션'과 열염료승화형 프린터를 이용한 '미니 QS', '키오스크' 등이다. 키오스크는 손쉬운 인화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명사진, 명함제작, 스티커 사진 등에 이르기까지 사진 현상소부터 스튜디오, 일반 팬시점, 휴대폰 복합매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국내에도 키오스크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곳 더 있지만 준시스템 제품을 최고로 꼽는 이유는 끊임없는 고객중심의 기술개발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재명 사장은 "성능의 차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며 "소프트웨어의 스피드와 안정성, 각종 메모리 카드·USB메모리 등 모든 저장매체를 수용하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준시스템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찍부터 체계화된 이 회사만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있다. 2003년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실시간 원격 제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굳이 멀리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컴퓨터로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모품 부족여부, 거스름돈 관리 등도 미리 체크하여 고객불편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집 등 장소에 상관없이 컴퓨터상에서 기기정보와 매출정보 등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서비스는 해외 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준시스템의 강점은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냉철하게 살



▶ 준시스템의 주력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조재명 사장

펴보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아내어 성능향상을 이뤄낸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잔돈 없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최초 개발한 동기도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해소를 먼저 떠올렸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용량화되어 가는 디지털 이미지에 착안하여 빠른 인화기술을 모든 제품에 적용했으며,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여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전송·출력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것은 개발자만의 몫이 아니라 오너부터 해서 모두가 몰입하지 않으면 이뤄내기 힘듭니다. 특히 개발자의 수준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고객중심의 기술개발과 원격제어 서비스로 '글로벌 제품력'을 실현한 준시스템이 자본력이나 인지도면에서는 소니, 코닥 등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이유는 판매 이유에만 연연하지 않고 초창기부터 꾸준히 고객중심의 기술개발 의지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과들이 올해 'DIMA Photo Kiosk Shoot-Out 대회'에서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를 도출해냈고, 3월 19일부터 일본 동경빅사이트



▶ 준시스템 직원이 원격 제어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통신사의 복합매장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원격 제어관리 시스템 화면



▶ 준시스템의 주력 제품인 PhotoHub 오더스테이션, 미니 QS, 키오스크

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기술제휴를 제의해 올 정도"라며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미 2번이나 제품력에 인정받은 것처럼 키오스크에 관한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매출규모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향후에는 동남아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시장을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크게

전시장에서 열리는 'Photo Imagin Expo 2008'로부터 당당히 초청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2008년은 수출 원년의 해로 더 큰 도약 시동

지난 5년간 포토 키오스크 사업에 주력하면서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함께 PMA·Photokina 등에 한국공동관으로 참가하며 해외마케팅에도 전력을 쏟고 있는 준시스템은 올해를 '수출 원년의 해'로 삼고 더 큰 도약을 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재명 사장은 "해외 전시회에 나가보면 글로벌 업체들도 '포토허브'의 소프트웨어 기술

터질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평균 한 해에만 10여회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준시스템은 매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새로운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참가했던 PMA전시회에서는 기능과 디자인이 더욱 새로워진 오더스테이션과 키오스크 제품을 선보이고 극찬을 받았다.

세계가 인정하는 준시스템의 관련 제품들은 오는 4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P&I 전시회에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더욱 작아진 포토허브(S형) 오더스테이션과 세련된 외형으로 PMA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포토허브(M형) 등 한층 보강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